



부록 | 모의고사 지문 분석

2024학년도 시준6 제2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독서 _____ 90쪽

문학 _____ 98쪽

의도적 행위의 조건

지문 평가

‘의도적 행위’를 데이비드슨이 어떻게 정의했고, 그 정의가 어떤 한계를 갖는지를 읽어 내는 것이 관건인 글이다. 글 자체도 어렵지 않고, 논의로 낯설어 보이지만 따져 보면 쉽다.

키워드

인문 - 철학 - 의도적 행위

데이비드슨, 의도적 행위, 욕구-믿음 쌍, 인과적 행위 이론, 인과적 일탈, 계획 이론, 통제 이론

문단 1 의도적 행위

- 1) **데이비드슨**은 인간의 **의도적 행위**는 행위자가 가진 이유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들과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때 행위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와 그 행위를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욕구-믿음 쌍**이다.

▶ ‘의도적 행위’를 데이비드슨의 관점에서 설명하면서,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의도적 행위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행위자가 가진 이유’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자가 가진 이유를 ‘욕구-믿음 쌍’이라는 개념으로 명명하고 있다.

의도적 행위 : 행위자의 욕구-믿음 쌍[→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그 행위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행위

- 2) 가령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와 부엌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믿음은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행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 **맥락 짚기** ‘의도적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앞선 설명의 각 요소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첫 문단에서 주어지는 예시는 앞으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유익해서 챙겨야 한다.

- 의도적 행위: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행위
-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
- 그 행위를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부엌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믿음

▶ 해당 예시에서는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부엌에 가면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행위자가 가짐’이라는 이유를 통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행위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를 ‘의도적 행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단 2 인과적 행위 이론

- 1)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욕구-믿음 쌍은 여럿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욕구-믿음 쌍이 그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 ‘의도적 행위’는 ‘욕구-믿음 쌍’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문단 1-1). 문제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욕구-믿음 쌍’이 여럿이라는 점이다. 따라

서 어떤 행위가 ‘의도적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 어떤 욕구-믿음 쌍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한다.

- 2) 부엌에 가는 행위와 관련해서 야식에 대한 욕구-믿음 쌍과 물에 대한 욕구-믿음 쌍이 있는데,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에 갔다고 해보자. 데이비드슨에 따르면 그 행위의 원인은 후자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 문단(2)의 예시를 이어받고 있다. 쉽게 말해서, ‘야식에 대한 것’도 있고 ‘물에 대한 것’도 있는 것처럼 여러 욕구-믿음 쌍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중에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욕구-믿음 쌍은 바로 ‘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다.

※※ **주목** 그 이유에 주목하자. 단순히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행위라고 적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지문의 표현 자체에 주목하자. ‘물에 대한 욕구-믿음 쌍’이 해당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행위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의도적 행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정교화시킬 수 있겠다(문단(1-1)).

의도적 행위: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행위자의 욕구-믿음 쌍[→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를 그 행위로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에 의해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행위

- 3) 이렇게 의도적 행위를 행위와 관련한 **특정한 욕구-믿음 쌍**에 의해 유발된 행위로 보는 이론을 데이비드슨의 ‘**인과적 행위 이론**’이라 한다.

▶ ‘특정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즉 데이비드슨은 여러 욕구-믿음 쌍들 중에서도, 그 행위의 ‘원인’에 해당하는 ‘특정한’ 욕구-믿음 쌍에 의해 유발되는, 그래서 그 욕구-믿음 쌍에 의해 설명되는 행위를 가리켜 ‘의도적 행위’라 보는 것이다.

▶ 바로 그러한 점에서, ‘인과적 행위 이론’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결과 관계가 성립하니 말이다.

욕구-믿음 쌍
[→ 원인] 유발 의도적 행위
[→ 결과]

문단 3 인과적 일탈의 사례를 통한 반론

- 1) 그런데 인과적 행위 이론은 ‘**인과적 일탈**’의 사례들을 통한 **반론**에 부딪힌다.

※※ **주목** ‘인과적 일탈’은 ‘인과적 행위 이론’, 즉 데이비드슨이 정의한 ‘의도적 행위’에 대한 반박이다. ‘인과적 일탈’이 어떤 점에서 ‘의도적 행위’의 정의[→ 문단(2-2)에서 정식화한 정의]와 충돌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2) 내가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욕구와 기침을 하면 몰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욕구와 믿음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그 긴장이 **기침**을 유발했다고 하자.

◀▶ **맥락 짚기** ‘인과적 일탈’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시다. 여기서의 ‘욕구-믿음 쌍’은 무엇에 대응하는지, 이것이 ‘의도적 행위’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파악하자.

-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욕구: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욕구
- 그 행위를 통해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기침을 하면 몰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믿음

▶ 만약 ‘기침’이라는 행위가 ‘선생님 몰래 친구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있고, 기침을 하면 그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신호를 보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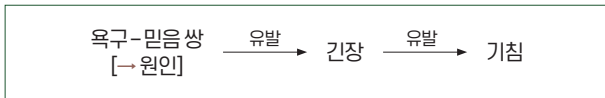
에 대한 욕구-믿음 쌍'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이는 딱히 반론의 사례로 기능하지 않는, 평범한 '의도적 행위'가 될 것이다[문단2-2].

※※ 주목 그런데 여기서는 중간에 '긴장'이라는 사건이 개입했다. 즉 해당 '욕구-믿음 쌍'에 의해 직접 '기침'이 유발된 것이 아니라, '욕구-믿음 쌍'에 의해 유발된 '긴장'에 의해 '기침'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3) 이때의 기침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기침과 관련된 나의 욕구-믿음 쌍이 기침을 유발한 원인이므로, 인과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나의 기침은 의도적 행위였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

▶ 우리의 상식에 비추었을 때, 이때의 '기침'은 행위자가 의도한 바가 아니므로, 의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과적 행위 이론에 따르면 이는 '의도적 행위'라고 봐야 한다. 아래와 같이 '욕구-믿음 쌍'에 의해 '기침'이 유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에 위배되는 결론이다. 즉 '인과적 일탈'에 따르면, '인과적 행위 이론'은 의도적 행위를 단순한 인과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즉 그 도중에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개입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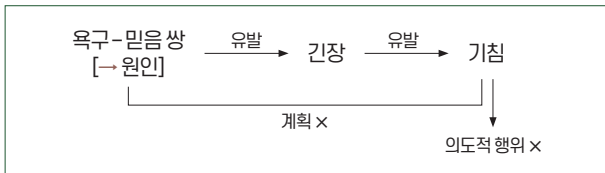
문단 4 계획 이론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 행위의 조건을 보다 강화한 대안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다소 전환되는 대목이다. '인과적 일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인과적 행위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앞으로 등장하는 관점들이 '인과적 행위 이론'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어떤 조건을 추가하는지], 어떤 점에서 '인과적 일탈'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그중 하나인 계획 이론은 행위자가 계획한 방식으로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만 의도적이라고 본다. 이 입장에 따르면 앞의 사례에서 나의 기침이 의도적이지 않은 이유는 내가 긴장이라는 인과적 매개를 거쳐서 기침을 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계획 이론'은 행위자의 계획을 엄격하게 따진다. 즉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사건이 도중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행위자가 계획한 방식이 아니므로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 즉 '행위자의 욕구-믿음 쌍'에 의해 유발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행위가 일어나는 전 과정이 '행위자의 계획'과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이 이론은, 실제로 우리가 의도적 행위를 할 때 인과적 세부 사항을 모두 계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잃는다.

▶ 계획 이론의 한계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문단 5 통제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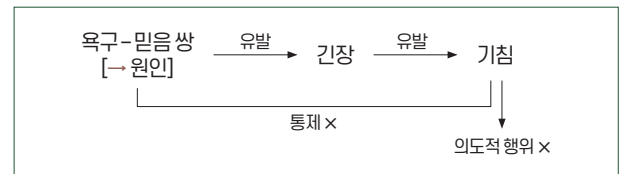
1) 보다 유력한 대안으로 알려져 있는 통제 이론은 의도적 행위를 행위자의 욕구와 믿음으로부터 단순히 인과적으로 따라 나오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행위의 이유인 욕구와 믿음에 의해 과정 전체가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유도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 반면에 '통제 이론'은 '의도적 행위'를 아예 '인과 관계'와는 별개로 이해한다. 여기서 '과정 전체를 통제'한다는 표현에 갇혀서, 이를 '계획 이론'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면 곤란하다.

※※ 주목 '통제 이론'은 행위의 그 이유인 '욕구-믿음 쌍'에 의해 행위까지의 과정이 전부 '통제'되는지에 주목한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충족하기 위한 과정인지를 기준으로 '의도적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이렇게 이해하면 긴장에 의해 유발된 기침은 나의 행위의 이유 [→ 욕구-믿음 쌍]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신체적 반응이므로 의도적 행위라 할 수 없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갑'은 부엌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 마시고 싶기도 했고, 부엌의 냉장고에 있는 주스를 마시고 싶기도 했지만, 커피를 마시기로 하고 부엌으로 갔다.

◀○ 맥락 짚기 '갑'의 행위들이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과 관점을 대입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부엌에 가는 행위'와 관련된 욕구-믿음 쌍은 주스와 관련된 것과 커피와 관련된 것이 있지만, '커피를 마시러 부엌에 갔다'는 의도적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커피와 관련된 욕구-믿음 쌍'뿐이다. 따라서 '갑'이 부엌에 간 행위는 커피에 대한 욕구-믿음 쌍에 의해서만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커피에 대한 욕구-믿음 쌍을 원인으로 한다[문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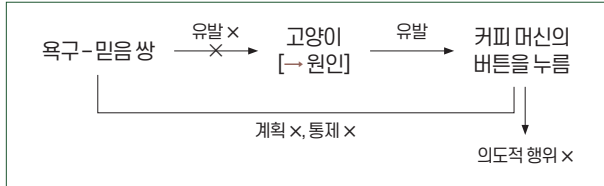
2) 그는 커피를 만들어 마시려는 욕구와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면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엌에 서 있었다. 그런데 갑 자기 숨어 있던 고양이가 나타나 '갑'의 다리를 스쳐서 뛰어갔다. 갑작 놀란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다가 우연히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눌렀다. 그 결과 커피가 만들어졌다.

▶ 갑은 '커피를 만들어 마시려는 욕구'를,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즉 '커피와 관련된 욕구-믿음 쌍'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도중에 '고양이가 다리를 스치는 사건'에 의해,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 이때 '갑'이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른 행위는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에 의해 '우연히' 유발된 것이다. 즉 행위의 원인이 '갑의 커피와 관
련된 욕구-믿음 쌍'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이 행위는 갑
의 욕구-믿음 쌍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한편 '계획 이론'에서는 커피 머신의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갑'이 계획한 방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 이론'에서는 '갑'이 우연히 버튼을 누
른 행위는 욕구-믿음 쌍에 의해 통제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8~11] 기술

X선관의 전자원

지문 평가

문단3까지는 '열전자원'과 '냉전자원'의 원리를 구분하여 이해하면 된다는 점에
서 난도가 높지 않은데, 문단4에 상당한 정보량이 몰려 있다. '냉전자원의 성능'
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유의하여,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를 잘 행거서 꼼
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키워드

기술 - 전기전자공학 - X선관

X선관, X선, 음극, 양극, 전자원, 열전자원, 일함수, 전위 장벽, 열전자, 냉전
자원, 전계 방출, 전극장, 터널링, 냉전자, 전장 증대 인자, 텅

문단 1 X선관의 전자원

1) X선 촬영에 필요한 **X선관**은 전자기파의 하나인 **X선**을 발생시키
는 장치이다. X선관의 내부에는 진공으로 전자들이 방출되는 곳인
음극과 전자들이 충돌하여 속도가 줄어들어 따라 그 에너지에 의
해 X선이 생성되는 곳인 **양극**이 있다.

▶ 아마도 글의 초점과 달아 있을, X선관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각
각의 역할에 주의하자. 'X선'은 전자들이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고, 이를 위
해 '음극'에서 양극을 향해 전자들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X선관의 원리이다.

2) X선관의 성능은 전자를 얼마나 많이 양극을 향해 집중해서 방출하
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음극에 해당하는 **전자원**의 특성에 좌우
된다. 널리 사용되는 전자원의 종류로는 가열이 필요한 **열전자원**과
상온에서 작동하는 **냉전자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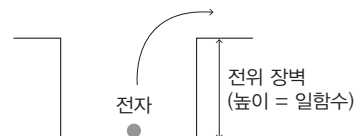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양극을 향해 방출되는 전자
의 수'가 곧 성능을 결정하는데, 두 전자원(→ 음극) 중에서 무엇을 사용할 때
에 더 성능이 높은지를 판단하면 된다. 즉 두 전자원의 원리를 구분하여 이해
하는 것이 관건이다.

방출되는 전자의 수 ↑ ⇨ X선관의 성능 ↑

문단 2 열전자원의 원리

1) **열전자원**으로는 주로 선 형태의 텅스텐을 꼬아 만든 필라멘트가
사용된다. 열전자원은 전자들이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지닐 때
금속에서 방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일함수**는 금속이 전자
를 구속시켜 두는 **전위 장벽**의 높이를 넘어서는 최소한의 에너지
로, 금속 종류에 따른 고유한 값이다.

▶ 먼저 '열전자원'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가 음극, 즉 열전자원에서 방
출되기 위해서는[문단],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이런 모습을 떠
올릴 수 있다.



2) 텅스텐 필라멘트에 강한 전압을 가하여 내부 저항에 의해 1,800℃ 이상으로 가열되면 전자가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전위 장벽을 뛰어넘어 방출된다.

➡ '열전자원'은 그래서 가열이 필요한 것이다[문단1-2].

3) 이렇게 방출된 전자인 **열전자**들은 각기 다른 에너지를 지니서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 또한 높은 전압으로 인해 전자원이 손상되기 쉽고 전력 소모도 크다. 가열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 '열전자원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다.

※ 주 목 '에너지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점에 특히 유의하자. X선관의 성능은 '집중된 방출'을 필요로 한다[문단1-2]. 그러한 점에서 열전자원은 치명적인 단점을 갖는 것이다.

문단 3 냉전자원의 원리

1) **냉전자원**에서는 전계 방출이 이용된다. **전계 방출**이란 금속 표면에 강한 전기장이 형성될 때 전자들이 일함수보다 낮은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방출되는 현상으로, 터널링 효과에 기인한다. 여기서 **전기장**은 음극에 가한 전압을 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로 나눈 값이다.

☞ 맥락 짚기 이번에는 '냉전자원'에 대한 설명이다. 문단2의 '열전자원'과 구분하여,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냉전자원'은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열전자원의 각종 단점들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다[문단2-3].

※ 주 목 '냉전자원'은 터널링 효과를 활용한다. 열전자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냉전자원에서는 '일함수보다 높은 에너지를 전자가 얻지 않음에도 방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터널링 효과'가 무엇일지, 이것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열전자원	냉전자원
전자가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얻어 양극을 향해 방출	전자가 일함수 이상의 에너지를 얻지 않아도 양극을 향해 방출

☞ 맥락 짚기 터널링 효과는 '강한' 전기장이 형성될 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즉 강한 전기장을 형성하려면 음극과 양극은 '가까워야' 하고,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는 '커야' 한다.

$$\text{전기장} = \frac{\text{음극에 가한 전압}}{\text{양극과 음극 간의 거리}}$$

2) 강한 전기장은 전위 장벽의 높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두께가 얇아지도록 하는데, **터널링**이란 전자가 파동의 성질도 지닌다는 점에 의해 전자가 얇아진 전위 장벽을 통과하여 방출되는 양자 역학적 효과를 말한다.

※ 주 목 '터널링'에 대한 설명이다. 전자가 전위 장벽을 '뛰어넘는' 대신에, 전위 장벽을 '통과하는' 현상이다. 두 표현을 구분하여 챙겨 두자. 이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져서 가능한 일이다.



☞ 맥락 짚기 두 전자원의 원리를 설명한 만큼, 이 둘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냉전자원은 전위 장벽을 '뛰어넘는' 필요가 없으므로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열전자원의 단점들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다[문단2-3].

으로 하지 않고, 가열이 불필요하므로 열전자원의 단점들로부터도 자유로울 것이다[문단2-3].

	열전자원	냉전자원
전자 방출	전위 장벽을 뛰어넘어 방출	전위 장벽을 통과하여 방출
전자 에너지	일함수 이상	일함수 미만
작동 온도	1,800℃ 이상	상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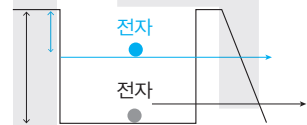
문단 4 방출되는 냉전자의 수

1) 이렇게 방출된 전자인 **냉전자**의 수는 전자원의 일함수에 반비례한다. 일함수가 낮을수록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냉전자원'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특히 이렇게 짧은 표현으로 주어지는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나중에 막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잊고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함수 ↓ ⇒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 ↑ ⇒ 냉전자의 수 ↑

☞ 참고 그림을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런 원리다. 일함수가 낮을수록, 전자가 통과해야 하는 전위 장벽은 더 얇아지는 셈이라서 '터널링'이 더 잘 일어나고, 그래서 방출되는 냉전자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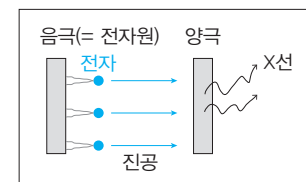
2) 또한 냉전자의 수는 음극에 가한 전압은 물론 …….

※ 주 목 놓치기 쉬우니 유의하자. 마찬가지로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다. 다만 이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는 아니다. 가하는 전압이 커진다면 '전기장'이 강해지는데, '강한 전기장'은 전위 장벽을 얇아지게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문단3-1].

음극에 가한 전압 ↑ ⇒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 ↑ ⇒ 냉전자의 수 ↑

3) …… 전장 증대 인자에 비례한다. **전장 증대 인자**의 값은 전자원의 형상에만 의존하는데, 보통 양극을 향하는 얇은 원통 모양의 긴 **팁**들이 [음극] 표면에 배치되도록 그 형상을 가공한다. 같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팁의 뾰족한 끝부분처럼 냉전자가 방출되는 면적이 평평한 판에 대비하여 좁을수록 유효 전압이 커지기 때문이다.

➡ '전장 증대 인자'에 대한 설명이다. '향하는', '얇은' 등의 묘사하는 표현이 나왔으므로, 팁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떠올리거나 직접 그려볼 필요가 있다. 즉 이런 모습을 떠올렸어야 한다.



※ 주 목 이렇게 팁 형태로 만들면 면적이 좁아져서 실제보다 '높은' 전압이 작용하는 것처럼 전자가 방출되는, 즉 유효 전압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압이 커지는 것처럼 작용하는 만큼, 방출되는 냉전자의 수는 늘어난다[문단 4-2].

방출면적 ↓ [→ 전장 증대 인자 ↑] ⇒ 유효 전압 ↑ ⇒ 냉전자의 수 ↑

4) 한정된 공간에 팁의 수를 늘리면 냉전자 방출이 늘어나는 면이 있으나 팁의 길이 대비 팁 간의 거리가 2배 이하로 줄어들 때부터 냉전자 방출이 방해되는 측면이 점점 커진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 팁의 수가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팁의 배치가 지나치게 뽁뽁해지면, 냉전자 방출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 맥락 짚기 관련하여 개념들 간의 관계가 주어졌으니, 정리하자. 즉 방출되는 냉전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팁의 수는 늘리되, $\frac{\text{팁 간의 거리}}{\text{팁의 길이}}$ 가 2 이상 이 되도록 그 배치를 고안해야만 한다.

팁의 수 ↑ ⇒ 냉전자의 수 ↑
 $\frac{\text{팁 간의 거리}}{\text{팁의 길이}} < 2 \Rightarrow \text{냉전자 방출 방해}$

5) 냉전자원 X선관은 비교적 전력 소모가 낮고 전원을 켜자마자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냉전자원은 '가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장점들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 예비 실험 : 냉전자원을 사용한 실험 대상 X선관은 음극에 K만 큼의 전압을 가하여 가동한다. 계측 장비로 이곳의 팁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팁들에서 원통의 뾰족한 끝부분의 평균 직경 [→ 방출 면적]은 $2\mu\text{m}$, 팁들의 평균 길이는 $100\mu\text{m}$, 팁들 간의 평균 거리는 $180\mu\text{m}$ 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맥락 짚기 냉전자원을 사용한 X선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떠올려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일함수 ↓ ⇒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 ↑ ⇒ 냉전자의 수 ↑

음극에 가한 전압 ↑ ⇒ 전위 장벽의 두께가 얇아지는 효과 ↑ ⇒ 냉전자의 수 ↑

방출면적 ↓ [→ 전장 증대 인자 ↑] ⇒ 유효 전압 ↑ ⇒ 냉전자의 수 ↑

팁의 수 ↑ ⇒ 냉전자의 수 ↑
 $\frac{\text{팁 간의 거리}}{\text{팁의 길이}} < 2 \Rightarrow \text{냉전자 방출 방해}$

2) ○ 본 실험 : 전압의 변경, 팁들의 교체나 배치 변경 등을 해 보며 양극에 충돌하는 냉전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변경 조건'을 찾는다. 나머지 작동 조건은 예비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단, 냉전자 방출이 최대가 되는 팁의 배치는 팁들 간의 평균 거리가 팁들의 평균 길이보다 2배 길 때라고 가정한다.)

∴ 냉전자 방출을 방해하지 않으려면, $\frac{\text{팁 간의 거리}}{\text{팁의 길이}}$ 의 값이 2 이상이어야 한다[문단 4-4]. 즉 현재 상황에서는 팁들의 평균 길이가 $100\mu\text{m}$ 이므로 팁들 간의 평균 거리가 적어도 $200\mu\text{m}$ 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⑤번 선지는 적절하다.

이 감

단기 자본의 대규모 이동과 그 규제 방안

지문 평가

전형적인 통합 지문이다. (가)에서는 문제 상황을 이론적으로 살피고, (나)에서는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경제 지문에서 유의해야 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와 연쇄적인 과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에 주목하여 잘 정리하기만 했어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키워드

(가) 사회 - 경제학 - 자본 유입의 문제, 실질 환율

신흥국, 선진국, 투자 수익률, 자산 시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정책 금리, 채권 금리, 실질 환율, 명목 환율, 외채

(나) 사회 - 경제학 - 토빈세

양적 완화, 이자 소득세, 양도 소득세, 토빈세, 신종론, 유동성, 가격 변동성

(가) 문단 1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 이동

1) 경제와 산업에서 뚜렷한 성장을 보여 온 **신흥국**들은 국내 자본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워 **해외 자본**에 자국 금융 시장의 문호를 개방해 왔다. 그에 따라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 이동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신흥국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 쉽게 말해, 신흥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 신흥국에서의 투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자본 이동'이 늘어났다는 얘기다.

➡ 이는 '신흥국'의 입장에서 나쁜 일은 아니다.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외 자본'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자본 이동이 급격히 일어나면 **자본 유입의 문제**라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주어지는 대목이다. '자본 이동' 자체는 신흥국에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급격히 일어나면'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독해의 초점이 된다.

(가) 문단 2 자본 유입의 문제

1) 신흥국에 유입된 자본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을 부풀려 **거품을 형성**하고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 더구나 대규모 자본이 단기間に 유입되면 환율은 물론, 각종 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여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쉽다.

➡ 신흥국에 급격히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정보만 행기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자본 유입의 문제점>

- 자산 시장에 거품 형성
- 경기 과열
-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

2)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금리 인상 등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그 유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중앙은행이 금리의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를 인상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물가가 안정세**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효과인데,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입으로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채권 금리**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 '급격한' 자본 이동에 의한 자본 유입의 문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 **맥락 짚기** 이 과정에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통화 정책의 과정이 서술되었으므로 잘 챙겨 두자. 경제 지문에서는 이렇게 개념들 간의 관계가 과정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제 문제에서 활용되거나, 글의 초점과 닮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 금리 ↑ ⇒ 통화량 ↓ ⇒ 채권 금리 ↑
⇒ 소비, 투자 ↓ ⇒ 물가 ↓

ⓧ **주목** 그런데 해외 자본이 급격히 유입되면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한다. 원래의 의도대로라면 축소되어야 하는 통화량이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오히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물가는 안정되는 대신에 더욱 상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 유입의 문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를 진정시키기 어렵게 만든다.

자본 유입 ↑ ⇒ 통화량 ↑ ⇒ 채권 금리 ↓
⇒ 소비, 투자 ↑ ⇒ 물가 ↑

(가) 문단 3 실질 환율의 하락

1) 가장 큰 부작용은 **실질 환율의 하락**에 있다. **실질 환율**은 물가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 환율로, 외국 화폐 한 단위당 자국 화폐가 교환되는 비율인 **명목 환율**에 외국 물가 지수를 곱한 것을 자국 물가 지수로 나눈 값과 같다.

ⓧ **주목**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짚고 있으므로, 이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실질 환율'이 왜 하락하는지를 파악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개념들부터 파악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되도록 수식의 형태로 정리해 두면 좋다. 그래야만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질 환율 = 명목 환율 × $\frac{\text{외국 물가 지수}}{\text{자국 물가 지수}}$

2)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외환 시장에서는 외화의 공급이 늘어 **명목 환율**이 하락할 뿐 아니라, 금리 하락으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실질 환율**이 급락할 수 있다. 실질 환율이 낮을수록 수출에 불리하므로, 이는 신흥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경상 수지 적자를 누적시키고 그에 따라 해외에서 빌려오는 채무인 **외채**의 규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 **맥락 짚기** 해외 자본이 대규모로 유입되면 왜 '실질 환율'이 하락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개념들 간의 관계가 제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자.

해외 자본의 대규모 유입

↓

- 외화 공급 ↑ ⇒ 명목 환율 ↓
- 금리 ↓ ⇒ 자국 물가 지수 ↑

↓

실질 환율 ↓ = 명목 환율 ↓ × $\frac{\text{외국 물가 지수}}{\text{자국 물가 지수}}$ ↑

※ 주목 여기서 '금리 하락'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정리한 과정을 끌고 와야 한다[문단2-2]}. 즉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 유입 ↑ ⇒ 통화량 ↑ ⇒ 채권 금리 ↓
⇒ 소비, 투자 ↑ ⇒ 물가 ↑ (⇒ 자국 물가 지수 ↑)

⇒ '실질 환율의 하락'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생겨 두자.

실질 환율 ↓ ⇒ 수출 경쟁력 ↑ ⇒ 경상 수지 적자 ↑, 외채 ↑

(가) 문단 4 실질 환율 하락이 신흥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 유입이 대규모 자본 유출로 반전되기 쉽다.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던 일부 투자자들에 의해 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군중 심리에 의해 유출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이는 신흥국의 자산 거품을 꺼트리면서 화폐 가치 급락에 따른 환율 급등을 낳고 외채 상황의 부담마저 가중시킨다. 그에 따라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 '자본 유입의 문제'로 신흥국의 경제에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면, 반대로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 신흥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신으로, 해외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 주목 따라서 '자본 유입의 문제'가 뒤집히면 '자본 유출의 문제'가 될 것이다. '자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거품이 꺼지는 것을 좋은 현상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급격한 자산 가격 하락을 뜻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 '환율'도 오르고, '외채 부담'도 가중된다. 다만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도 오르게 되어, 경상 수지 적자는 완화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문단3-2]}.
 ⇒ 결국 이를 예방하려면, 자본 이동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신흥국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해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 유입의 문제	자본 유출의 문제
• 자산 시장에 거품 형성 • 경기 과열 •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 • 통화 정책의 유효성 ↓ • 실질 환율 ↓ ⇒ 수출 경쟁력 ↓ ⇒ 경상 수지 적자 ↑, 외채 ↑	• 자산 시장의 거품 꺼짐 • 화폐 가치 ↓ ⇒ 환율 ↑ • 외채 부담 ↑

⇒ 결국 이를 예방하려면, 자본 이동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자본의 급격한 유입이 신흥국의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해 신흥국에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문단 1 단기 자본의 대규모 이동에 대한 규제

과거 여러 신흥국들이 '자본 유입의 문제'를 겪자, 단기 자본의 대규모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에는 불안감 때문에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자본이 대규모 유출되는 한편, 선진국에서 통화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양적 완화를 단행하자 선진국의 자본이 다시 신흥국으로 대규모 유입되는 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이에 자본 이동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 맥락 읽기 통합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나)를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자본 유입의 문제'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나)에서는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는 신흥국에서의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초래했다. 해외 자본 투자자들이 신흥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품었기 때문일 것이다[(가)의 문단4].

◎ 참고 여기서 '양적 완화'를 자본의 대규모 유입에 대응하는 선진국의 해결 방안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그 자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양적 완화는 '통화 규모의 확대', 즉 통화량 확대를 뜻하고, 이는 채권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선진국 채권'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다시 신흥국으로 자본이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읽어 내야 하는 대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고 과정을 확장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다.

◎ 맥락 읽기 한차례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대규모 유입·유출이 이어졌다. 이는 (가)에서 다룬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을 테고, 그에 따라 해결 방안으로서의 '규제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해결 방안'을 파악할 때에는 의식적으로 해당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래야 이어지는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상황 : 대규모 자본 이동의 문제
- 문제 원인 : 단기[→ 급격히 일어나는] 자본의 대규모 이동
- 해결 방안 : 자본 이동의 규제

(나) 문단 2 조세 부과 방식

1)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금융 기관이 해외에서 차입한 단기 외채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측면에서 자본의 대규모 차입을 억제해 왔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자본 유입을 억제해 왔는데,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 수익에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고, 국내 매매에서 얻은 차익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조세 부과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

◎ 맥락 읽기 우리나라의 기존 규제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입장에 놓고 이해하면 편하다. 규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도록 하자. 문제에서 이 둘을 구분하여 이해하였는지를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규제 방안	차입한 단기 외채 금액에 부담금 부과	이자 소득세, 양도 소득세

2) 조세 부과 방식은 채권의 수익률을 낮추어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본 유출입의 전체 상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애초에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투자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즉 조세를 부과하여 투자 수익률을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다. 즉 '급격히 일어나는' 자본 이동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나) 문단 3 토빈세의 도입

1)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존의 정책만으로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토빈세'의 도입을 요구한다. **토빈세**는 외환을 거래할 때마다 거래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본 유출입은 외환 거래를 동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토빈세는 자산 시장 전반에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효과를 낳는다.

※ 주목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으로 '토빈세'를 소개하고 있다. 앞선 규제 방안들과 구분하여 이해하자. 토빈세는 '단기 외채'에 대해서만 부과되지 않고 '모든' 외환 거래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수요자 측면에서의 규제 방안'보다 강력하다. 또한 토빈세는 '차익'에 대해서가 아닌 '거래'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공급자 측면에서의 규제 방안'보다 강력하다.

2) 토빈세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부과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토빈세의 실질적인 세율은, 한 거래와 다음 거래 사이의 기간인 거래 주기에 반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토빈세는 장기 투자 자본에 영향을 덜 미치면서, 단기적으로 유출입을 반복하는 투기 자본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 주목 문제의 원인은 단기[→ 급격히 일어나는] 자본의 대규모 이동이었다[문단1]. 따라서 '단기적으로 유출입을 반복하는 투기 자본'을 제어하는 것이 규제의 목적이지만, '장기 투자 자본'의 제어는 규제의 목적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토빈세'가 효과적인 것이다. 토빈세의 실질 세율은 '외환 거래 주기'가 짧을수록[→ 단기 자본 이동일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외환 거래 주기 ↓ ⇒ 토빈세의 실질적인 세율 ↑

3) 토빈세는 징수 비용이 매우 낮아서 조세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며, 결과적으로 자산이 많은 자들에게 누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의 공평성에도 부합한다.

➡ 읽고 넘기자.

(나) 문단 4 토빈세 도입에 관한 신중론의 입장

1) 다만 토빈세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토빈세를 부과하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들로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므로 자산 시장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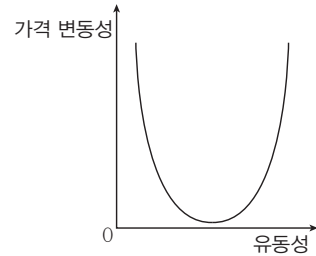
➡ '신중론'의 입장이다. '토빈세'는 외환 거래 그 자체의 수익률을 낮춘다[문단 3-1]. 따라서 토빈세의 원래 목적은 '단기적인 투기 자본'의 유입만을 억제하는 것인데도, 모든 해외 자본이 이에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에는 유입되지 않을 수도 있다.

➡ 물론 '장기 투자 자본'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세율이 낮아서 부담이 덜하겠지만, 굳이 그 부담을 지면서까지 해당 국가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국가에 자본을 투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2) 토빈세로 인해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유동성**

을 가로축으로 삼고 **가격 변동성**을 세로축으로 삼은 평면에서 외환을 비롯한 자산 거래는 'U' 자 형태를 띤다고 알려져 있다. 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U' 자의 하단부인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려면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하다. 신중론의 입장에서 볼 때 토빈세로 인해 외환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면 환율 변동성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맥락 짚기 '유동성'과 자산의 '가격 변동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그 구체적인 형상을 떠올리거나, 그려 볼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모습을 떠올렸어야 한다.



➡ '토빈세의 도입'은 외환 거래에 부담을 주는 만큼, 외환 거래를 위축시키는 [→ 유동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유동성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 'U' 자의 하단부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외환의 가격 변동성, 즉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신흥국 **갑**은 1990년대 초에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에 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1990년대 말에 자본 유출로의 반전이 나타났다. 이는 '갑'에서 나타난 '자본 유입의 문제'에 더해, 인근 신흥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해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된 탓이었다.

※ 맥락 짚기 지문에서 설명한 '자본 유입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규제' 정책에 관한 내용을 <보기>의 구체적인 상황에 각각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갑'은 자본 이동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였는데, 이러한 규제들은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다[(나)의 문단2]. 즉 자본 이동에 대한 규제 철폐 후 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서 발생한 일이다[(가)의 문단1-1].

※ 주목 문제는 그 유입이 '급격히'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 유입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떠올리자[(가)의 문단1-2]. 이는 '갑'의 경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이에 더해 인근 신흥국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로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자, '자본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다[(가)의 문단4]. 문제 상황의 세부 내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 유입의 문제	자본 유출의 문제
· 자산 시장에 거품 · 경기 과열 · 자산 시장의 불안정성 ↑ · 통화 정책의 유효성 ↓ · 실질 환율 ↓ ⇒ 수출 경쟁력 ↓ ⇒ 경상수지 적자 ↑, 외채 ↑	· 자산 시장의 거품 꺼짐 · 화폐 가치 ↓ ⇒ 환율 ↑ · 외채 부담 ↑

2) 이후 2008년 선진국 **을**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갑'에서의 자본 유출입은 '을'의 통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당시

‘갑’은 토빈세의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해외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갑’의 금융 기관의 단기 차입은 감소했으나, 장기 차입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2008년 ‘을’의 금융 위기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참고하면 되겠다 [(나)의 문단].

➡ ‘갑’이 토빈세 대신에 도입한 규제들은, 특히 ‘수요자 측면’에서의 규제에 해당 것이다. ‘단기 차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수요자 측면	공급자 측면
규제 방안	차입한 단기 외채 금액에 부담금 부과	이자 소득세, 양도 소득세

3) 한편 ‘을’은 2014년에는 통화 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여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유발하였다가, 2020년에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등 통화 정책 기조를 수시로 변경했다.

*** 주목 ‘을’은 통화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통화 규모를 확대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니 유의하자![(나)의 문단].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선진국의 통화량 ↑	선진국의 통화량 ↓

∴ “을”은 2014년에는 통화 규모를 크게 축소하는 양적 긴축으로 전환하여 ‘갑’에서는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데, 이는 화폐 가치의 급락으로 인한 환율의 상승이라는 문제를 초래한다[(가)의 문단4]. 즉, 명목 환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나)의 문단2]. 투자 수익률을 낮추어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이는 ‘갑’의 자본 유출로 인한 명목 환율 상승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23~26] 고전시가

(가) 「초당춘수곡」

— 남석하 —

작품 평가

19세기 초에 창작된 사대부 시가로서, 전대(前代) 사대부의 은일 시가에 나타난 표현이나 정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는 이미 향촌 사대부의 관직 진출 가능성이 극도로 희박해진 세도 정치의 시기인데, 작가는 젊은 시절에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입신양명을 꿈꾸다가 50세를 맞은 나이에 그러한 꿈을 포기하고 향촌에서의 현재 삶에 만족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석송(石崇, 진나라 때의 이름난 갑부로,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부자의 대명사처럼 회자되었던 인물이다. 부와 권력을 누리다가 정적에게 피살되었다.)의 부(富)함으로 금곡(金谷, 석송이 지은 호화로운 별장의 이름)의 집을 지어

산호 구슬 흰 돌로 청루 미색 다 사들여

일시 호강 즐기어도 죽은 후에 무용(無用) 되니

➡ 역사에 오래 이름을 남긴 부자인 석송조차도 생전의 사치와 호강이 죽은 뒤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상산에 숨은 사호(四皓) 바둑판이 명절(名節)이요[→ 진(秦)나라 때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상산에 은거한 네 선비가 썼다는 바둑판이 그들의 절개를 나타낸다는 뜻]

동강에 남긴 자릉(子陵) 낚싯대가 청표(淸標)로다[→ 한나라 때 벼슬을 마다하고 동강에 은거한 엄자릉이 썼다는 낚싯대가 그의 청렴함을 보여 준다는 뜻]

➡ 사호의 절개와 자릉의 청렴함을 예찬하고 있다.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석송의 부귀보다는 은거를 택하여 절개와 청렴함을 보여 줬던 사호나 자릉처럼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도 또한 그 안(=마음)이라 인생 팔 세 공부에 들어

사서삼경 배워 내어 과문 육체(科文六體, 과거 시험에서 쓰이던 여섯 종류의 문체) 익히어서

청운(靑雲, 벼슬에 오르려는 꿈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의 낙수교(落水橋,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선비들이 건넜던 다리)를 이십 전에 올라가서

홍진(紅塵)의 봉성월(鳳城月, 대궐에서 보이는 달)을 삼십 전에 보겠다니

➡ 8세에 공부를 시작하여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면서, 20세 전에 소과에 급제하여 대과에 응시하고, 30세에는 대궐에서 근무하는 관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괴화나무[→ 학문에 힘쓰는 선비의 자세를 표상한다고 여겨졌던 나무] 늦은 꽃에 백면서생(白面書生, 한갓 글만 읽고 세상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 못 면하니

➡ 제때 꽃을 피우지 못한 괴화나무처럼 자신도 늦은 나이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되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십에 늦었던 말 어젯날에 들었더니

오십에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로, 공자가 오십 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다고 한 데서 비롯되어 오십 세를 달리 이르는 말)을 오늘날에 당(當)하도다

➡ 지난날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미 과거 급제는 늦은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50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급제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은 이제 마음을 접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초당(草堂, 초가집)에 서성이며 봄날에 비겨(=기대어) 앉아
구궁궁궐(= 대궐) 바라보고 풍운 일회(風雲一會, 바람과 비구름이 한데
모인다는 뜻으로, 용이 승천하거나 큰 뜻을 성취할 조건이 갖춰졌음을 의미함) 꿈꾸
더니

➡ 그럼에도 혹시나 임금이 갑자기 관리를 보내어 자신을 높은 관직에 오르게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룰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
었다는 것이다.

➡ 참고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향촌에서 학문과 수양에 몰두하고 있는 사대
부 중 이름 높은 이들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 높은 벼슬을 주는 일이 종종 있
었다.

남양 처사[→ 제갈량] 내 못 되니 삼고초려(三顧草廬, 촉나라 왕이었던
유비가 남양 지방에 은거하던 제갈량을 인재로 맞이하기 위해 그의 초가집을 세 번
나 찾아갔던 일) 뉘 앓을고

➡ 자신은 제갈량 같은 인재가 아니니, 임금이 자신을 부르는 일이 있겠느냐
는 것이다.

황홀한(=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어지러워진) 장자(莊子)의 뜰에 동풍 호접
(胡蝶, 호랑나비)뿐이로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어 날아다니다가 깬 후에 나비
였던 것이 꿈인지, 장자인 것이 꿈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한 시구]

➡ 자신을 삼고초려할 사람은 없으니, 자신의 뜰에 찾아오는 것은 봄바람을
즐기는 나비뿐이라는 것이다. 혹은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꿈에서 하루하루가 깬 것처럼, 관직에 올라 입신양명하려던 꿈이 허망한 것이었
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청풍명월 좋은 경(景)을 값없이 얻었으니

부귀(富貴)는 뉘 주인이고 계산(溪山)은 내 차지라

➡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좌절감을 토로하던 화자가 갑자기 태세를 바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광이 빼어난 자연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 어떻
게든 만족해 보려는 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만학천봉(萬壑千峰,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와 수많은 산봉우리) 깊은
곳에 천사만념(千思萬念, 온갖 생각) 다 잊으니

➡ 자신은 이제 세속과 동떨어진 강호 자연에 은거하며 세속에 대한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신선이 신선인가 내가 정녕 신선이라

➡ 자신의 삶을 신선의 삶처럼 이상화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1~34] 고전소설

「유씨삼대록」

— 작자 미상 —

— 수록 지문 평가

제목 그대로 유씨 집안의 삼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수록 지문은
2대인 유세형이 둘째 부인 장 씨에게 미혹되어 첫째 부인 진양 공주를 찾아가
소동을 피우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 둘째 부인 장 씨에게 현혹되어 첫째 부인 진양 공주를 못마
땅하게 여기고 멀리하던 부마 유세형은 술을 마시고 공주를 찾아가 그의 부모
상궁인 장손씨를 불러 꾸짖는다.

토막 1 부마 유세형과 엄 태감의 대립

부마 가로되,

“여자가 시집가면 그 귀함이 남편보다 더하지 못하니, 초나라 공주
도 백정(=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쫓아 섬겼
던지라. 내 비록 용렬하나(=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대대 명문
가의 선비이니, 어찌 공주가 나를 압도함을 달게 여겨 내 뜻을 폐
하리오? 너희 공주가 부녀자의 덕을 크게 잃었으니 금일 아니 경계
치 못하리라. 공인은 괴이히 여기지 말라.”

➡ ‘초나라 공주와 같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 혼인한 여자는 본래의 신분과
무관하게 남편을 따르고 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 자신은 변변치 못
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명문가’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대대로 명문가의 선비인 자신이 아무리 공주라고 할지라
도 아내에게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고는 입었던 홍금포(紅錦袍, 붉은 비단옷)를 벗어 불 지르고 옥대
(玉帶, 옥으로 장식한 띠)와 옥홀(玉笏, 옥으로 만든 홀)[→ ‘홍금포’, ‘옥대’, ‘옥홀’
은 황제가 부마에게 하사한 물품을 의미함]을 벗어 철봉으로 깨친 후[→ 부마로
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복장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주의 남편, 즉 부마가 된 자신의 처지
를 불만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공관과 공노를 불러
공주의 궁인 수백여 인을 다 잡아 내어 날날이 결박하고, 공주가 사치
하고 방자하여 남편을 능멸했다며 그 죄를 물어 궁인을 벌하려 하는
지라. 장손씨[→ 공주를 모시는 궁인]는 공주의 뜻을 알때 순순히 사죄하
며 말이 없되, 태감(= 내시의 우두머리) 엄광이 대로하여 분연히 달려들
어 부마를 대하여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주공(主公)이 비록 존귀하시나 우리 진양 공주는 평범한 금지옥엽
(=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이 아니라 태후 마마께서 소중히 여기
심이 황상 위에 두시거늘, 주공이 어찌 여염집 필부의 소소한 부
녀를 대접하는 도리로써 공주의 죄를 대신하여 궁인들에게 엄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시나잇가? 국법이 엄하다 하나 『춘추』에 이른
바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 하니, 국법도 이
렇거든 하물며 주공의 사사로운 노기로 어찌 감히 공주를 범하시
리잇고? 엄광이 황실의 명을 받자와 공주를 뵈셔 주공을 섬기며,
주공이 존귀하시나 오히려 공주를 안 후에 주공을 안 것이나이다
[→ 주공, 즉 부마가 높은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은 공주를 주공보다 우선하여 섬기겠

다는 말이다.], 금일 공관과 궁노 등이 어찌 감히 공주의 죄를 물어 공주의 좌우를 치리잇고? 명일 대궐에 가 결단할지언정 만 번 죽어도 이런 명은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 태감은 ‘국법이 엄하다’고 한 후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춘추’의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공주가 법보다도 위에 있는 고귀한 신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태감은 국법으로도 범치 못할 공주를 부마가 ‘사사로운 노기’로 감히 범하려 한다며 그의 행동이 그릇됨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태감은 부마가 공주를 대함에 있어 부부간의 질서에 앞서 공주의 신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부마 대로하여 크게 꾸짖어 왈,

“나룻(=수염) 없는 중놈[→ 내시를 비하하는 말]이 어찌 감히 상하의 체면을 알지 못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계를 알지 못하고] 당돌히 안전에 들어와 나를 욕하느뇨?”

태감이 더욱 고성 왈,

“비록 만 번 죽더라도 이 명은 따르지 않으리니, 엄광의 고집이 공주를 위한 충인즉 태후 마마와 황상께서 또한 알으시리니[→ 신분이 부마보다 낮은 엄광은 자신의 충성심과 황실의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행동의 근거로 삼고 있다.], 주공의 명은 좇지 못하겠나이다.”

부마가 더욱 노하여 칼을 뽑아 난간을 세 번 치자 바위가 깨어지고 돌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천리 밖까지 진동하니, 맹호가 산중에서 날뛰고 용이 창해에서 몸을 뒤집는 것 같아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온 궁중이 불안에 떨며 어찌할 줄 모르되, 태감이 황태후 칙지를 들어 부마와 다투어 종시 궁인을 구하고 공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그르다고 어지러이 말하며 굴치 않으므로, 부마의 노기 점점 더해 가더라.

▶ 부마와 엄 태감의 대립이 심해져 급기야 부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엄 태감이 굴하지 않고 부마에 맞섬으로써, 그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부마의 노여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토막 2 진양 공주의 사대 수습

공주가 저와 같은 정경을 보고 장손씨를 불러 가로되,

“금일 태감이 다만 공주를 알고 공주의 남편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말마다 황명을 들먹이니 부마로 하여금 입을 열기 어렵게 하는지라. 저가 비록 무도(=말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서 막됨) 하나 나의 남편이라[→ 공주는 남편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어찌 나의 공관이 그를 압도하리오?[→ 나보다 신분이 낮은 내 부하가 내 남편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말] 금일 명분은 가히 말로 다투지 못하리니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 있으리라[→ 쉽게 종결되지 않을 사태를 수습하고자 몸소 나서겠다는 것].”

그러고는 공주가 화관을 벗고 금의(錦衣)를 탈하여 두어 궁녀로 거적을 깔게 한 후[→ 석고대죄(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윗사람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를 하려는 모습, 즉 부마의 질책을 순순히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단 아래에서 시녀로 하여금 부마께 사죄하여 가로되,

“첩이 부귀에 혼미하여 높은 학문이 없거늘 부마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내조하는 덕이 없을 뿐 아니라 공관의 무례함이 이 같으니, 금일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리니 스스로 죄를 받음을 원하나이다.”

▶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에게 순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공주가 실제로 사치스럽고 학문이 부족하고 내조하는 덕이 없는 등 부

마의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인물은 아니다. ‘저가 비록 무도하나 나의 남편이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공주는 남편의 질책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아내로서 남편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참고 이 작품에서 진양 공주는 높은 신분이면서도 시종일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극진한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는데, 둘째 부인 장 씨에게 미혹된 부마는 그런 공주의 모습까지도 위선과 가식이라 여기며 불만스러워한다. 이를 모두 간파하고 있는 진양 공주는 이 장면에서와 같이 덕성과 지혜를 발휘하여 현명하게 처신함으로써 부마 스스로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이끌어 준다.

또 엄 태감에게 말을 전하여 왈,

“경이 이미 황명을 받자와 나를 섬길진대 그 주공을 어찌 모르리오 마는 이제 도리어 대의를 어지럽혀 상하의 체면을 알지 못하니, 내 몸이 경의 주인 됨이 참괴한지라. 경은 마땅히 대궐로 돌아가 태후궁을 시위하도록 하라.”

▶ 공주의 신분을 내세워 부마에게 맞선 태감의 행동이 오히려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태감은 신분이 중요하니 공주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 달라고 부마에게 항변하였지만, 정작 태감 자신은 본인보다 높은 신분이자 공주의 남편인 부마에게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위계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셈이라는 것이다.

엄광이 바야흐로 곧은 성품을 내어 죽기로 굴치 아니하더니, 공주가 석고대죄 하는 거동이 이같이 엄중하고 꾸짖는 말이 이같이 엄격하매, 사모를 벗고 머리를 땅에 두드려 왈,

“신이 어질지 못하여 금일 황태후의 칙지를 욕되게 하고 공주 마마가 금지옥엽의 몸으로 거적 가운데 좌천하시게 하니 신의 죄는 만 번 죽어도 가벼울지라. 죽을죄를 청하옵나니 어찌 태후궁 시위하기를 바라리잇고?”

또 부마를 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기를 마지아니하더라.

▶ 공주의 단호한 질책에 엄광은 공주에게는 물론이거니와 부마에게도 사죄하고 있다.

토막 3 부마의 태도 변화

부마는 이때 성질이 급하게 일어나 공주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다가 태감이 완고한 쟁론으로 황명을 거론하매 일을 끝내기 어렵더니, 공주가 계단 아래 당 끝에서 석고대죄 하는 모습을 보건대 인륜[→ 부부간의 도리를 의미]이 중한 것을 알아 자기를 향하여 사죄하고 태감의 날카로운 기세를 조용히 제어하되 늙름하고 엄정하니, 진실로 역사책 가운데 구하여도 드문 행동이더라[→ 공주의 행동이 역사에 기록된 사람들에 비견될 정도라는 뜻].

▶ 앞서 벌어진 일을 부마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하고 있다.

취중의 미친 듯한 마음에도 크게 깨닫는 바 있고 또한 감동하여, 좌우 사람들로 태감에게 사모를 주게 하여 위로하여 내보내고, 궁인들을 결박한 것을 풀게 하고, 형벌 기구를 거두게 하더라.

▶ 앞에서 벌어진 상황으로 인한 부마의 심리와 결부하여 이어지는 행동을 서술함으로써, 부마가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